금주의 법구-〈법구경〉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을 고통받지 않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5일)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설정 스님 사퇴 '초읽기' 종정 교시 "용퇴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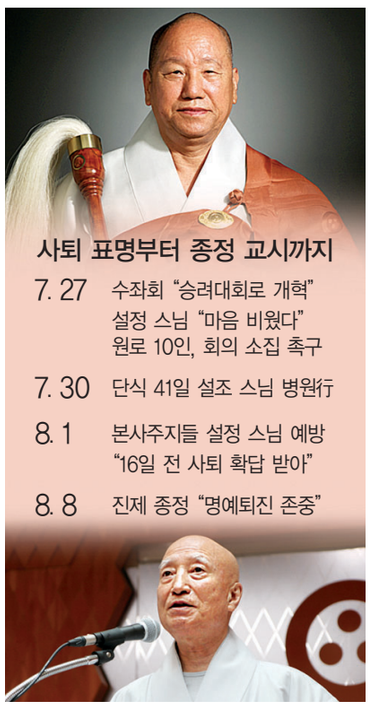
차기원장 선출로 갈등 예상… 내홍 장기화 조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정 스님은 7월 27일 기자회견서 "종도 의견을 수렴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까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을 통해 8월 16일 소집되는 중앙종회 임시회 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종단 법통의 상징이자 정신적 최고 지도자인 종정 진제 스님이 8월 8일 내린 교시에서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사실유무를 떠나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 종단제도권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사퇴의사를 존중하면서 설정 스님의 구체적인 사퇴시기 조율만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

설정 스님의 공식적인 사퇴 선언은 중앙종회 임시회서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6~7일경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건강악화와 8일 소집 예정이던 원로회의가 오는 22일로 미뤄지면서 중앙종회 임시회 당일 신상발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설정 스님 "임시회 前 사퇴"
종정도 명예로운 퇴진 당부
16일 임시회 신상발언 관심

전국승려대회 23일 예고에
총무원장 퇴진 찬반 여론이
세력다툼으로 번지는 형국

7월말부터 감지된 용퇴론

설정 스님의 용퇴론은 지난달 27일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날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단 20명이 설조 스님 단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승려대회를 통한 개혁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면서부터다. 그러자 설정 스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길을 진중히 모색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단식 중이던 설조 스님을 찾아가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저녁 원로의원 10인이 총무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30일에는 설조 스님이 단식 41일째 병원에 이송되고, 원로회의 소집 일정마저 앞당겨지면서 설정 스님 용퇴론이 한층 거세졌다. 8월 1일에는 용퇴론에 방점이 찍혔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설정 스님을 예방해 즉각적인 사퇴를 권하자 설정 스님은 "16일 중앙종회 임시회 전에 용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설정 스님은 8월 9일 신임 총무부장에 성문 스님, 기획실장에 진우 스님을 임명했다. 사퇴의사를 표명한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을 선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성문 스님이 총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임기마저 불확실한 총무부장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설정 스님이 사퇴하면 종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궐위 60일 내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까지 권한대행은 총무부장이 맡는다. 다만 올해는 11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0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총무원장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승려대회 최대 분수령

이처럼 설정 스님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는 논란의 발단이 된 설정 스님 친자의혹 사실 여부보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방법을 두고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혹 규명으로 시작된 총무원장 퇴진 찬반여론이 세력다툼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과 전국선원수좌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현재 승려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상임추진위원장으로 원인(청정승가탁마도량 상임대표) · 퇴휴(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 월암(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스님을 추대했다. 이들은 "전 종도들의 참정권을 되찾아 승가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권승들이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종헌종법을 개정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승려대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8월 1일 기자회견서 "일부세력이 개최하려는 승려대회는 인정할 수 없다. 적극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정 진제 스님도 교시에서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하여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 스님의 이 같은 교시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승려대회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 선거법을 통한 총무원장 선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향후 소집되는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입장도 진제 스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종단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조계종 사태는 23일 열리는 전국승려대회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승려대회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와 같은 초법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력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양상이어서 종단 위신을 가린 먹구름이 걷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마당 물놀이로 폭염 'OUT' 사찰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경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 불교학교 –아이 좋아! 물놀이 하자!'를 개최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에는 유래없이 29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즐거워 하는 모습이다. 한편, 조계사 외에도 서울 화계사, 청주 용화사 등이 경내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판문점 선언 법등 삼아 통일 실천을"

조계종 · 조불련, 광복 73주년 8.15남북공동발원문 채택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8월 15일 남북공동으로 발표

남북 불교도들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광복 73주년을 맞이해 북측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와 8.15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민추본과 조불련은 공동발원문에서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짚고, 변함없는 통일 의지를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남북불교도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민족화합의 새 역사,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 핵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에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상찬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실천은 곧 화해와 화합, 평화와 평등이며 자타불이"라고 강조한 남북불교도들은 "판문점 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등으로 삼고 실천행에 떨쳐나서겠다"고 발원했다.

8.15 광복을 계기로 남북공동발원문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4년 이후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8.15 남북공동발원문은 4년 만에 채택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편, 발원문은 8월 15일 열린 남북불교동시법회에서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문화소외계층' 함께 한다

문화사업단, 법주사 · 불국사 등서 '나눔 템플스테이'

보호관찰 청소년, 도박중독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불교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법주사, 불국사, 화계사 등서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법주사와 불국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화계사와 길상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도박 중독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보호관찰소 청소년과 도박 중독자를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는 자연에서 이뤄지는 문화 체험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내면 치유와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는 전통문화 체험 활동이 포함돼 있어 한국문화 이해와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www.1027beopnan.kr

제2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8.6.15금 - 2018.9.7금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총무원 사회부 ·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개요
- 공모부문 : 시 · 산문 · 만화
-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 수필, 기행문, 콩트, 주장글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 응모기간 : 2018. 6. 15(금) ~ 9. 7(금)
  ※작품접수(우편 혹은 홈페이지)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시상
- 시상인원 : 총 24명 이내 선정
- 시상금액 : 총 2,70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대상 (총무원장상)	3편 (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총무원장상)	3편 (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동국대학교총장상)	6편 (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불교신문사장상)	12편 (부문별 각 4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공모전 참고목록
- MBC 10·27법난 30주년 특집 다큐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2010년 10월 27일 방영)
- 10·27법난 자료집(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위원회)
- 10·27법난의 진실(유응오 저, 화남출판사)
-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1027beopnan.kr

접수방법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02-730-4489)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1027beopnan.kr)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 만화의 경우 원본 추가 접수

문의
공모전 담당자 이경민 : 1027contest@naver.com , 010-2771-0002